지금형편을 바라보는 기술

(에스겔 6:1~14)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3.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4.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5.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6.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7.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지금형편을 바라보는 기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지금형편을 바라보는 기술'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문에서 강조되는 내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씩 표현을 바꾸어 가면서 에스겔서에서 60회 이상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은 네 번이나 반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점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문과 제목의 '지금형편을 바라보는 기술'이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형편을 바라보는 기술'은 단순히 내가 처해있는 현재 상황을 살펴보는 기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기술이 되기도 하고, 내가 대하는 모든 대상들에게 적용되어야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열 개의 사과 먹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매일 한 개씩 사과를 먹을 때에 어떻게 먹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냐는 것입니다. 열 개 중에는 상태가 좋은 사과도 있고 썩기 직전인 사과도 있습니다. 이때에 급한 마음을 가지면 상해가는 사과를 먼저 먹게 되고 다음 날에도 또

상한 사과를 먹게 됩니다. 최악의 상태인 사과부터 먹으면 열 개를 먹는 내내 최악의 상태의 사과만 골라먹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일 좋은 상태의 사과부터 먹으면 열 개 중에서 최고의 사과를 먹은 것이고, 다음 날에는 아홉 개 남은 것에서 최고의 상태를 먹는 셈이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아홉 번은 최고의 상태의 사과를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실제 살림을 하는 주부들의 입장에서보자면 가족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안 좋은 것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는 사람은 그냥 깎아주는 대로 먹으니 항상 최고의 것을 먹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개입되면 의미가 달라지겠습니다만 보편적이고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열 개의 사과를 최고로 잘 먹는 방법은 항상 최선의 상태의 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것을 적용해봅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이에게 50년의 여생이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이 젊은이가 50년간을 최고의 삶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젊은이가 '지금형편을 바라보는 기술'이 있다면 매년 365일을 최고로 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지금형편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형편을 바라보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최고와 최선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면 평생을 소모해도 최고와 최선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형편을 바라보는 기술'을 습득해서 지금이 최고와 최선으로 보이면 매일 매일을 최고와 최선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를 개선해야 될 나쁜 것으로만 여긴다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할지라도 결코 최고와 최선이라 느껴지는 상황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볼 줄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인생은 최고이자 최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고이자 최선일 것입니다. 특별히 선민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민들에게 파괴와 멸망이 가득한 상황이 주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7절 10절 13절 14절을 통해 네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예언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생활을 하던 선민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내용은 머나먼 유다 땅에 있는 산당들을 파괴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땅의 아름다운 산골짜기나 들판에는 오직 풍요와 다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당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본래 선민들은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상번제가 드려지는 것을 기억하며 상번제를 생활화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자 되고 부흥하고 번영하고 형통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자기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골라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혹은 몰렉과 같은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풍요와 다산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신이 자신들에게 이러한 멸망을 가져다주었는지에 대해 궁금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통해 이들의 행위가 우상숭배였음을 알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얻기 위해 가장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을 취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처참한 멸망과 파괴가 대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민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러한 멸망을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산당 제사의 위험성은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시한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산당은 쉽게 말하면 모든 우상숭배의 백화점입니다. TV 드라마를 보면 극중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부처님 삼신할머니 신령님 용왕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대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성을 감추고 상황을 우스꽝스레 표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바로 산당은 이러한 일이 진심으로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산당에서는 어떤 문제를 놓고서 바알도 부르고 몰렉도 부르고 하나님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상숭배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선민들은 하나님을 바알이나 아세라 옆에 함께 있는 신으로 격하시켰습니다. 근동지방에서 유행하던 모든 신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본래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섭섭할까봐 끼워준 셈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듯이 바알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전에서는 정해진 신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었고 정해진 규칙에 따른 숭배의식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이러한 의식을 지킬 필요도 없었고 원하는 신을 원하는 만큼 찾을 수 있는 쉽고 편한 곳이었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의 여보로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으로 부르게 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을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풍요와 다산을 주고 삶을 개선시키게 도와주는 신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선민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다른 우상들과 같은 선상으로 전락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당을 훼파하실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민들이 그렇게 나아지길 바랐던 삶의 형편에 오히려 멸망과 비극과 불행으로 채워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선민들의 형편을 멸망으로 채우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산당이 지금형편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론의 일환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당을 훼파하시리라는 것은 지금형편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좌절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봄과 지금형편을 바라보는 마음의 관점이 불가

분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었지만 그 이름이 가리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알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부부가 동침하여 서로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민들은 지금형편을 개선시키기 위해 산당을 짓고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는 신들을 모았습니다. 개선을 바란다는 것은 지금형편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고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느끼게 된 이유는 실제로 이들의 삶이 부족과 결핍에 놓여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진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출애굽을 위한 사명을 받을 때에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 받은 선민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삶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놀이공원의 미끄럼틀을 타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놀기 위해서는 먼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합니다. 선민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로 간 후에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마음을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에게 삶을 놀이로 살도록 주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지금형편이 놀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은 먼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로 갔다가 이 세상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땅에 머물고 있으면 미끄럼틀을 탈 수 없듯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지 않으면 선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민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으심을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접하는 모든 대상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존재하게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형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형편을 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로 먼저 향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시선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선민들에게 전능하심을 계시하셨습니다. 또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신을 피조물인 나에게 통째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형편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옳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으로 주어진 지금형편은 최고이자 최선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 되었다면 최고이자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틀릴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선민의 삶이 최고이자 최선이 아니라면 그것이야 말로 기적일 것입니다.

행여 재벌이 돈의 능력으로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자 할지라도 한계는 있습니다. 자녀가 불치병에 걸린다면 돈이 아무리 많은 재벌이라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해주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자녀를 파멸로 이끌고 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벌의 삶조차도 최고이자 최선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게 인격적 교류를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의 백성이 될 때에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이러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무시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처한 삶의 상황은 언제나 최고이자 최선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최고이자 최선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형편에서 머리카락 한 올 만큼도 바꿔야 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지금을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오류투성이이며 온전하지 못한데 정말로 최고이자 최선이 주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오류투성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에 주어진 상황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주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감옥에 들어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며 가난에 처하거나 쫓기는 신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민으로써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과 의로움에 의해 결정된 일입니다. 가난에 처하고 쫓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더라도 그것이 최고이자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류나 잘못까지도 다 계산하셔서 최고이자 최선의 지금을 주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가 최고이자 최선임을 인정한다면 이 상황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선민들의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든 지금의 상황을 바꾸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안에서 기준을 찾도록 합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성공하고 번영하고 부유해지는 상태만을 옳은 것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소유하지 못한 지금은 항상 부족하고 결핍한 상태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동안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제외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를 뿐이지 하나님께 마음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에서 제외시키고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거울을 바라보면 못 생긴 사람이 보입니다. 내 얼굴을 못 생겼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잘 생겼다는 기준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는 순간 스스로 못 생겼다고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 자체가 추악한 죄악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로써 자신을 계시하신 이유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

이 피조의 대상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대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기업과 몫으로 가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지금형편에 대해 세상에서 배운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항상 옳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빠져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 내용을 상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마음속에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럴 때에 인격적으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적셔진 마음으로 지금형편을 보면 최고 최선의 상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이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과거에 저지른 악함과 오류까지도 계산해서 지금을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스스로 있지 않은 나에게 모든 것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방식은 지금형편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고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형편에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형편을 바라볼 수 있는 기술이 습득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을 최고 최선으로 볼 수 없고 마음에 확신과 감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세상에서 배운 기준대로 미래를 향해 달려갈지라도 결코 최고 최선의 상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형편이 최고 최선인 것이 마음으로 느껴질 때에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최고 최선을 모르는 선민들의 형편을 멸망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지금형편을 바라보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함과 결핍으로만 바라보면서 수정하고 개선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멸망으로 채워진 지금을 끌어안고 산 결과는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나의 마음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습니다. 세상의 삼라만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보다도 피조 된 대상을 붙잡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가장 추악하고 용서 못할 죄악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삶의 형편과 대상들을 마음으로 먼저 붙잡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산당 제사와 같습니다. 입으로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마음에서 여호와를 우상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하나님께서 훼파하시려는 산당에서 드려지는 제사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의 형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붙잡고 개선시키려 하고 발전시키려 하는 이 마음가짐 자체가 죄악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된 세상을 먼저 붙잡은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동일시 될 때에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늘에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미끄럼틀을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올라가면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좋으심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갖게 되고 세상을 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형편이 전지전능하시고 틀림이 없으시며 옳으신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형편은 개선할 대상이 아니라 감사할 대상입니다. 또 지금형편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최고 최선임을 느껴야 할 대상입니다.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지금형편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에게로 올라가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서 지금형편을 다시 보면 최고 최선으로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 최선의 형편임을 실감하면 내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 없으며 바꿀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설령 감옥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따라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냄으로써 이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충분히 적셔지고 난 뒤라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최고 최선으로 진행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 최고와 최선 속에 어떤 다양한 계획과 모습과 형편들이 들어있을지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참 많은 것을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어리석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분히 적셔진 상태에서 지금을 바라보며 최고 최선임을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